2024. 8. 4 제115권 31호

주일1부(묵상)예배

오전 7시30분 인도:김기중목사

예배의부름		인 도 자
송 영		찬 양 대
찬 송	*서서 11장	다 함 께
성시묵상	48	다 함 께
고백의기도		다 함 께
사죄의선언		인 도 자
신앙고백		다 함 께
찬 송	*앉아서 458장	다 함 께
기 도		길건성장로
찬송묵상	(너 근심 걱정 말아라, 권용일장로)	다 함 께
봉 헌 송	*서서 213장(4절)	다 함 께
봉헌기도		담 임 목 사
교회소식	*앉아서	담 임 목 사
찬 양	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	샬롬찬양대
찬 송	637장	다 함 께
성경봉독	열왕기하18:36~19:3(구약P.595)	담 임 목 사
말씀선포	【옷을 찢은 사람들】	담 임 목 사
말씀묵상		다 함 께
성도의교제	*서서 55장	다 함 께
축 도	송영	담 임 목 사

오늘의 말씀 / 김승학 목사

열왕기하 18:36~19:3 / 옷을 찢은 사람들

성령강림절 후 열한째 주일
이단 경계 주일
전교인 출석 주일

주일2부(전통)예배 / 오전 9시 인도:황관욱목사

찬 송	11, 458, 276, 55장	다 함 께
교 독	48	다 함 께
기 도		김봉수장로
찬 양	살아계신 주	호산나찬양대

주일3부(세대통합)예배 / 오전 10시30분 인도:정승호목사

찬 송	송축해 내 영혼, 458, 276, 선한 능력으로	다 함 께
기 도		권오규장로
찬 양	내가 약할 때	글로리아찬양대
파송과위탁		다 함 께

인도자 :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.
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.
회 중 : 마라나타,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. 아멘.

주일4부(열린)예배 / 오후 12시

경배와찬양	소리엘찬양단
목회기도	인 도 자

†**내주기도 :** Ⅰ부 - 서광수 장로 / Ⅱ부 - 권용일 장로 / Ⅲ부 - 서정자 장로
청년예배 - 박경봉 집사 / 찬양 - 권오규 장로 / 수요 - 고주영 권사
†**이달의 강단 꽃장식 :** 권창범 한효상 권하진 권예진 장은진 장은서 김효철 손대호 표현창

❀ 8월 예배위원 -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❀

구분	안 내	봉 헌	예배중보기도	차량안내
Ⅰ	김광수 권태섭 정태순 남미화	배외수	임현숙	강성갑 고예란 권대기 권오덕 권중익
Ⅱ	이종길 임병태 김순화 천순선	권오덕	권향수	길건성 김종관 김주현 박수권 박영재
Ⅲ	신동현 이주일 최희숙 강영희	정은재	고주영	사봉권 신미영 성기용 서재창 양광석
Ⅳ	임원수 김대식 서정순 고주영	남국섭	신승주	이국환 정휘동 정영수 조대웅 황병락

주일5부(청년)예배 / 오후 1시45분 인도자:정준환목사

기도 - 조재일집사

설교 - 신명기28:1~6(구약P.303) / 광야의 개척자 / **정준환목사**

주일오후찬양예배 / 오후 3시 (하늘청년교회 헌신예배) 인도자:위은수청년(하늘청년회장)

경배와 찬양 - 하늘청년찬양단 / 찬송 - 266, 436, 54 / 기도 - 박경봉집사(2청부장) / 찬양 - 하늘청년찬양대

성경 - 데살로니가전서5:16~18(신약P.333)-류형근청년(1청부회장) / 하나님의 뜻을 사는 하늘 청년들 / **김영달목사**

수요오전예배 / 오전 10시30분

경배와 찬양 - 예음찬양단 / 특송 - 백합중창단

설교 - 출애굽기19:1~6(구약P.110) / 26.시내광야-언약을 준비한 땅 / **담임목사**

수요저녁예배 / 오후 7시30분

경배와 찬양 - 르비딤찬양단 / 기도 - 서정순권사 / 특송 - 107~111구역 / 찬양 - 다비다찬양대

설교 - 에스더2:5~7(구약P.751) / 93.모르드개-한 나라의 역사를 바꾼 사람 / **담임목사**

묵상노트

"옷을 찢은 사람들" (열왕기하 18:36~19:3)

1. _____하며 옷을 찢은 사람들 (18:37)
묵상을 위한 질문) 앗수르의 랍사게는 남 유다의 사신들에게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별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다. 이때 엘리야김, 셉나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갔다. 옷을 찢는 것은 원통과 분노를 의미하는데, 하나님이 조롱당한 것이 너무도 원통했기 때문일 것이다.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을 때 옷을 찢을 정도로 원통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?

2. _____하며 옷을 찢은 사람 (19:1)
묵상을 위한 질문) 앗수르가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는 사신을 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를 산헤립에게 보냈다. 하지만 랍사게의 조롱을 알게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한 것을 회개하며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. 이처럼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회개한 경우가 있는가?